



부산 만덕~센텀 지하도로 사업 조감도



부산 만덕~센텀 지하도로 사업 만덕 측 진출입로 조감도

GS건설, 지하 인프라 구축 박차

최근 포화한 도심 인프라의 대안으로 지하 대심도 도로 및 철도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미 지하 대심도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며,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도 지하 대심도 인프라는 지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프라 본연의 기능은 물론, 안전과 환경, 미관까지 개선하는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은 서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림~봉천 터널 도로, 부산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등 지하 도로 건설과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서울지하철, 신분당선, 위례신사선, 인천도시철도, 싱가포르, 베트남, 카타르 지하철 등 국내외 지하 고속철도 및 지하철 건설을 통해 국내 약 7조원, 해외 약 6조원 규모의 실적을 쌓아왔다.

GS건설은 이러한 다양한 지하 인프라 시공 실적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건설공사는 약 2천645억원 규

모의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 본선터널, 삼성역 확장 공사가 포함된 프로젝트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조성되는 다양한 시설의 효율적 공간배치를 통해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GITC(Gangnam Intermodal Transit Center)를 거점으로 봉은사역~삼성역 간 지상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과 영동대로 지하개발 4공구가 연결되는 곳으로, 실효성 있는 최적의 설계와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GS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주간사로서 연계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개발 4공구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시공이 가능하며, 위례신사선과 동시 시공을 할 수 있어 장비 활용 등을 통한 공기 단축 및 최적 시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인근 지하 공사 최다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기술 자료와 데이터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영동대로 코엑스 구간의 ASEM타워, 코엑스 컨벤션, 파르나스타워, 코엑스인터컨티넨탈 등 다수의 고층빌딩 지하공간 굴착 및 구조물 시공 경험이 있다. 또 영동대로 인근의 지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와 시공이 가능한 풍부한 기술자료와 데이터도 확보하는 등 영동대로 지하개발 4공구 사업 수주를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GS건설이 국내외 지하 인프라 공사에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어디서든 통하는 충분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췄다”며 “더 활발하게 진행될 지하 인프라 구축에 한몫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GS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GS건설이 국내외 지하 인프라 공사에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어디서든 통하는 충분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췄다”며 “더 활발하게 진행될 지하 인프라 구축에 한몫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평면 현황도

